



© Marco Borggreve

명연주시리즈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 / 07 / 07 Fri. 7:30 PM
Daegu Concert House Grand Hall

DCH
|||



Welcome to the Concert

오늘 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독일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하여 공연을 갖습니다. 2013,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부임해 고공스런 풍류 사운드에 현대적 매력을 부가한 헬리스트 출신의 지휘자 비하켄 잔데를링이 내한 공연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연합군의 포격으로 도시 기반이 붕괴되었던 비범한 클래식 공화국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모 교회, 츠빙어 궁전과 같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즐비한 드레스덴 구시가지 한 복판에 위치한 문화 궁전(플라우아 스트리) 올해 4월, 4년 동안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풍류 이전부터 문화 공연을 본거지로 삼아온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악단의 브랜드 가치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930년대부터 실력과 유명 지휘자들을 연이어 맞이하면서 독일 악단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울 베크만을 시작으로 아르투르 니키슈, 헤르만 야켄트 로프, 한스 크나피츠허쉬, 에리히 클락비, 요제프 카일베르트 등 감동으로 살 수 없는 풍부한 명장들의 정열이 악단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풍류 시절, 쿠르트 마주어로 상징되는, 과장을 배제하고 기쁨을 가득 머금은 고공스런 사운드로 유명했던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명장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 비하켄 잔데를링을 새로운 사절장으로 세워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하켄 잔데를링은 악단에 꾸준히 이어 내려온 독일 관현악의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를 계승하는 한편, 헬리스트 출신답게 현악 파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단의 개별적 기능과 앙상을 능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악단의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잔데를링의 독특한 방식은 메인 레퍼토리인 프랑스 교향곡 4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연에는 2006년 리그 콩쿠르 우승자 김선옥이 당시 대회 우승을 확정 지은 김선옥 프랑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합니다. 당시, 마크 알미/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김선옥의 프랑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대회가 배출한 우승자들의 결선 연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빛나는 명연으로 손꼽힙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모차르트-베도벤-슈베르트-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피아노 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특유의 기교와 에너지로 넘칠없이 펼치는 김선옥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1년 전, 대다수 국내팬들이 리크의 승리를 직격 지지할 수 없었지만, 더욱 성숙해진 음악인으로 돌아온 김선옥이 한국 관객 앞에서 다시금 프랑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올해 김선옥은 프랑스 피아노 협주곡 탐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크 알미/할레 오케스트라와 새롭게 녹음한 프랑스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올해 상반기 발매됐고, 연말에는 프랑스 협주곡 3번을 서울시향과 연주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점검합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할 잔데를링과는 현호 독일에서 필하모닉과 브리튼 피아노 협주곡을 현연하면서 절정의 호흡을 선보인 바 있어, 이번 내한 공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여정의 조화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program

브람스
Johannes Brahms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 단조, Op. 15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 I. Maestoso
- II. Adagio
- III. Rondo: Allegro non troppo

피아노_ 김선욱
Piano_ Sunwook Kim

인터미션
intermission

브람스
Johannes Brahms

교향곡 제4번 E 단조, Op. 98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 I. Allegro non troppo
- II. Andante moderato
- III. Allegro giocoso
- IV.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공연 중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진 영상, 녹음 기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Unauthorized camera and recording devices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Marco Borggreve

미하엘 잔데를링 | Michael Sanderling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미하엘 잔데를링은 2011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그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잔데를링은 세계 최고 음악 단체들로부터 초청받고 있으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일본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밤베르크 심포니, 빈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도쿄 NHK 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베를린 출신인 미하엘 잔데를링은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출세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1987년, 20세였던 잔데를링은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첼로 솔로이스트로 활동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에서 활동하였다. 솔로이스트로 그는 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받았으며, 체임버 음악에도 대단한 열정을 지녀 8년 동안 트리오 엑스 에쿠오 멤버로 활동하였다.

2000년 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허설에서 그는 지휘자 단에 처음 올랐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전설적인 지휘자인 쿠르트 잔데를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미하엘은 점점 지휘자 직을 맡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2006년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어셔가의 몰락>과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 오페라 지휘로도 성공적인 무대를 거뒀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서 잔데를링은 드보르자크, 슈만,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등 여러 작품으로 음반 발매를 하였다. 2010년 이후 첼리스트로서의 활동은 접고, 지휘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들과 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프랑크푸르트 공연예술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독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바이마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용게 도이체 필하모닉, 슬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작업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하면 미하엘 잔데를링은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연 중에는 단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낸다고 한다. 그의 음악적 지평은 바흐와 헨델부터 여러 초연 무대까지 폭 넓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사운드와 스타일의 유연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김선욱 | Sunwook Kim

Pianist

런던을 근거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18살이었던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경연 결승에서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 연주했던 브람스 협주곡 1번으로 비평계의 극찬을 받았다. 동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런던 심포니(존 엘리엇 가디너, 다니엘 하딩),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정명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마레 야노프스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사카리 오라모, 앤드류 맨지, 투간 소키예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라이 발추하, 에드워드 가드너), 런던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정명훈), NHK 심포니(칼-하인즈 스테픈), 할레 오케스트라(마크 엘더)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 협연으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2016/17시즌 김선욱은 루가노 RTSI 오케스트라, 쾰른 필하모닉, 툴루즈 캐피톨 국립교향악단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014/15시즌 상주 음악가로 활동했던 본머스 심포니와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을 연주하였다. 리즈 콩쿠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는 지난 시즌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으로 투어를 함께했으며, 브람스 협주곡 1&2번 레코딩을 진행했다. 이 앨범은 2017년 할레 오케스트라 레이블로 발매됐다.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욱은 베를린 필하모니, 파

리필하모니, 위그모어 홀, 테아트르 콜론을 포함한 주요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으며, 파리 살 플레엘에서 개최되는 'Piano 4 Etoiles'에도 정기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독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런던 인터내셔널 피아노 시리즈 같은 페스티벌 역시 김선욱의 주요 활동 무대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LG아트센터를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완수했고, 2014년 가을 바흐-프랑크-슈만으로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가졌다.

2015년 가을 악센투스(Accentus) 레이블로 베토벤 후기 소나타 '발트슈타인'과 'hammer 클라비어'를 담은 첫 독주앨범을 출판한 김선욱은 2016년 브람스 소나타 3번 등이 수록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2017년 베토벤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을 담은 세 번째 독주곡집을 선보였다. 앞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2종의 협주곡 앨범 역시 호평 받았는데, 그 중 진은숙 피아노 협주곡집은 BBC뮤직메거진상과 국제클래식음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0살에 독주, 12살에 협연 데뷔 무대를 가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리즈 콩쿠르에 우승하기 앞서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4),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5)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된 김선욱은 베토벤 하우스 소장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닉 |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쿠르트 마주어, 마렉 야노프스키, 라파엘 프뤼베펜데 부르고스를 이어 2011년부터 미하엘 잔데를링이 수석 지휘자 직을 맡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5세기 시의회에서 모집한 음악가들로 구성되었던 '음악 협의회(Ratsmusik)'가 19세기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온 단체이다. 드레스덴이 첫 콘서트홀을 갖기 시작한 1870년 이래로, 오케스트라의 교향악 콘서트를 중심으로 도시의 콘서트 문화가 발달해왔으며, 이 외에도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오랫동안 오페라 협주곡과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콘서트 오케스트라로 활동해왔다. 오케스트라는 구시가지의 문화 궁전(Kulturpalast)에 상주하며 2017년에 새로운 공연장으로 신축되기 전까지 주 공연장으로는 알베르티눔과 베를린 국립극장을 사용했다.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낭만 레퍼토리를 통해 독일 정통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바로크와 빈 클래식 음악, 또는 현대 곡들을 통해 유연한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오래 전부터 여러 지휘자들 및 작곡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중에는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부터 에리히 클라이버, 한스 크나퍼츨부쉬, 앙드

레 프레빈, 네빌 마리너, 안드리스 넬슨스와 크리스티안 예르비까지 다양한 음악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초연 무대 또한 오케스트라의 중심 레퍼토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크로이츠에서 드레스덴 소년합창단과 함께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바흐 연주로 고정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합창 교향곡 레퍼토리를 통해 드레스덴 필하모닉 합창단과 가까운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의 일부는 드레스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소속이며, 체임버 음악과 체임버 교향곡 연주로 오케스트라의 체임버 음악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정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프로그램, 영화 음악 콘서트 등 새롭고도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을 보다 더 다양한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매년 세계적인 무대에 초청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국제적인 명성을 증명해왔으며 1937년부터 음반 레코딩에도 힘써왔는데, 최근에는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 아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을 커플링하여 녹음하였으며 2015년 11월 소니 레이블을 통해 <교향곡 6번>이 처음 발매되었다.



© Nikolaj Lund

브람스_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 단조, Op. 15

Johannes Brahms_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브람스의 첫 협주곡이자 첫 관현악곡인 이 작품의 유래는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2월 브람스의 멘토였던 슈만이 자살을 기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브람스는 곧바로 뒤셀도르프로 달려가서 슈만 가족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마음이 애뜻한 연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해 3월(또는 4월), 브람스는 친구 요아힘에게 편지를 보내 3악장으로 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 브람스는 이 소나타를 바탕으로 교향곡을 작곡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선 1악장을 관현악곡으로 고쳐 써서 요아힘과 클라라에게 비평을 구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워낙 스스로에게 엄격한 성품이었던 브람스는 그 과정에서 악곡의 결합과 관현악법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이제 '좌절된 교향곡'은 피아노 협주곡으로 변모했다. 작업은 예상보다 더디 진행되어, 1856년 여름에 슈만이 세상을 떠나고 그 해가 을이 되어서야 브람스는 첫 악장을 클라라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2대의 피아노로 몇 번 연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해 말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요 며칠 저는 협주곡의 1악장을 정서했습니다. 요아힘은 마지막 악장을 무척 기대하고 있지요. 지금은 당신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다지오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클라라의 초상'으로 언급된 아다지오 악장은 이듬해 1월에 완성되었다. 브람스는 그 악보를 요아힘에게 보내 비평을 구했는데, 그때 브람스는 악보에 라틴어로 "주의 이름 아래 오는 자에게 축복 있으라!"라는 기도 문구를 기입했다. 어쩌면 그는 이 악장에 슈만과 클라라에 대한 경의와 위로를 담고자 했던 것일까? 다만 이 문구는 나중에 삭제되었다. 한편 마지막 론도 악장이 확정된 것은 1857년 5월이었다. 그러나 브람스는 1858년 2월까지 요아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완하고 세부를 수정했다. 결국 완성된 협주곡의 초연은 1859년 1월 22일, 하노버 궁정극장에서 이루어졌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1악장)과 피아노 협주곡 3번(3악장), 그리고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조 등에서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브람스 고유의 '교향적 협주곡'의 시발점이 되었다. 피아노 파트는 고도의 테크닉과 스태미너를 요하지만 관현악을 압도하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로 맺어져 있고, 전곡은 유기적이면서도 명쾌한 구성으로 고전파적인 형식감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관현악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면이 없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욕과잉'을 느끼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 곡은 정열 넘치고 쾌기 충만했던 청년 브람스의 초상을 전하는 가장 뜨겁고 생생한 증언이라 하겠다.

1악장: 거대하고 장엄한 첫 악장은 마치 천둥 치듯 강렬한 관현악 총주로 출발한다. 이 개시부는 초자연적 울림과 오르간 포인트(지속저음)의 부각이라는 면에서 다분히 '합창교향곡(베토벤)'의 개시부를 떠올리게 한다. 계속해서 관현악에 의한 서주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거의 1주제만 나타나며 투쟁적 분위기와 숙명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서주의 격렬한 요동이 차츰 가라앉으면 주부로 넘어가고 이내 피아노가 등장한다. 제시부에서는 투쟁적 국면으로 나아가는 제1주제와 지극히 차분하고 서정적인 제2주제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특히 풍부한 표정을 머금고 서서히 부풀어 올라 무한한 동경을 자아내는 제2주제부의 감흥이 각별하다. 피아노의 강렬한 타건과 함께 시작되는 발전부에서는 피아노와 관현악이 마치 전투라도 벌이듯 격렬하게 맞부딪히다가 폭발적인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재현부 이후에 음악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 오른 다음 격정적인 울림 속에서 마무리된다.



© Marco Borggreve

2악장: 명상적 기운과 종교적 기쁨으로 가득한 아다지오 악장이다. 피아노와 관현악이 응답풍의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주요 주제는 첫머리에서 바순이 제시하며 피아노의 정교한 서법이 두드러진다. 어떤 이는 이 악장을 들으면서 브람스가 언급했던 '클라라의 초상'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슈만을 기리는 진혼곡의 이미지를 거론하기도 한다. 침착하고 사색적인 흐름 속에 깊은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듯하며, 감동적으로 치솟는 클라이막스에서는 그 모든 상념과 감정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듯하다.

3악장: 경쾌하고 활력 넘치는 론도 피날레 악장이다. 다시금 펼쳐지는 투쟁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역경과 고뇌를 떨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이 악장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론도 주제는 다성적 요소와 당김음을 지니고 있어 바흐의 협주곡을 연상시키며, 두 번째부 주제는 카논 풍으로 등장하여 역시 바로크적 기법을 가리키고 있다. 아울러 중간의 단조 부분에서 푸가토를 도입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수법은 베토벤의 협주곡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에서 음악은 '환상곡 풍으로'라고 지시된 짧은 카덴차를 거친 후 코다로 넘어가 잠시 멎을 부리는 듯 느긋한 흐름을 보이다가 밝은 D 장조로 힘차게 마무리된다.

브람스_교향곡 제4번 E 단조, Op. 98

Johannes Brahms_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브람스는 이 작품에 이르러 '낭만적 내용과 고전적 형식의 융화'로 일컬어지는 독자적 교향곡 양식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곡을 끝으로 더 이상 '교향곡'은 남기지 않았다. 사실 이 곡은 브람스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나 싶은데, 작곡 과정에서 상당 기간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그 진척 상황이나 정보를 비밀에 부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런 행동이 브람스에게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 곡에 대한 보안에는 좀 특별한 구석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무척 과감한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세교회 선법을 도입하고 바로크 변주곡을 구사하는 등 과거의 음악양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브람스가 이 곡을 완성한 후 빈의 살롱에서 친구 브뤼와 함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판을 연주했을 때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내비쳤다. 비평가 한슬릭은 "지독히 영리한 두 사람에게 머리를 두드려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고, 전기작가 칼베크는 브람스에게 스케르초 악장을 휴지통에 던지고 피날레는 따로 출판하라고 충고했다. 심지어 절친했던 클라라 슈만과 헤르초겐베르크 부인마저 지나치게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1885년 10월 27일 마이닝겐 궁정에서 이루어진 정

식 초연은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공작은 대만족을 표시하며 1악장과 3악장의 재연을 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교향곡은 빈에서 남서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뮌치슬라크에서 작곡되었다. 브람스는 1884년과 1885년에 여름휴가를 보내며 '교향곡 4번'과 여러 가곡을 쓴 이 산간마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남겼다. 우선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법과 같은 달밤의 하루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지는군요." 또 지휘자 한스 폰 벨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이 작품이 이곳 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버찌들은 결코 단맛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뮌치슬라크의 버찌는 정녕 이런 맛이었을까? 이 교향곡은 대체로 어두운 색조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짝사랑한 여운을 남긴다. 이 곡은 작곡 시기상으로 소위 '브람스 만년의 작품'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년의 작품들에 드리운 '질은 우수와 적막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 브람스의 나이 어느덧 50대 초반! 어쩌면 그는 지나온 고독한 삶을 미련과 회한 가득한 시선으로 반추하면서 그 궁극적 귀결점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악장: 첫 악장은 무척 단순한 모티브로 출발한다. 곡이 시작되면 바이올린이 하행 3도 및 상행 6도 음정을 번갈아 꺼내놓으며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모티브는 악장을 구성하는 기본 소재로서 마치 건물을 짓는 벽돌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 부수적인 선율들이 어우러지면서 제1주제부를 형성하고, 강한 리듬 위에서 사뭇 비장하게 흐르는 제2주제(호른과 첼로), 한결 부드러운 오보에 선율 등이 대비를 이루면서 고도로 건축적이고 드라마틱한 흐름을 구축해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브람스가 그 단순한 모티브들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 짜놓은 제1주제 안에 붙여넣은 숨결은 짙막한 음표들 사이사이에 놓인 쉼표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탄식과도 같은 허전함, 왠지 가슴 한 구석이 시린 느낌이야말로 이 곡의 기저에 흐르는 정서를 대변한다 하겠다.

2악장: 발전부가 생략된 소나타 형식을 취한 이 악장에서 브람스는 중세 교회선법(프리기아 선법, Phrygianmode)에 기초한 선율을 사용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악장을 가리켜 '달빛 비치는 언덕 맞은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장례행렬 같다'고 했는데, 분명 이 악장에는 어스름한 빛이 스며있고 종교적인 기운이 흐른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는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한 고독한 인간의 회한과 변민을 목도하게 된다.

3악장: 스케르초에 해당하지만 소나타 형식을 취한 악장으로 가장 늦게 완성되었다. 힘찬 리듬과 화려한 색채로 넘쳐나는 축전적인 곡으로서 음악은 시종 활기차고 강렬하게 타오른다, 마치 젊은 날의 불꽃처럼.

4악장: 바흐의 칸타타 "주여, 당신을 갈망하나이다(Nachdir, Herr, verlangt mir, BWV150)"의 중곡("내 모든 고통의 나날들은 신에 의해 기쁨 속에서 마감될지니")에서 가져온 8마디의 베이스 주제에 기초한 파사칼리아 또는 샤콘느(바로크 변주곡의 일종)이다. 치밀하게 설계되고 긴밀하게 연결된 30개 변주에 의한 흐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부(에스프레시보, 3/2박자)는 차분한 4개(12-15)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엄하고 심오한 악장은 온갖 상념과 사유, 감정의 편린들이 새겨진 변주들의 연결이 드라마틱한 기복을 형성하며 전개되다가 마침내 통렬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2017 명연주시리즈 ————— *great performance series*

명반으로만 만났던 명연주자들의 실황을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만난다

- | | | | |
|---|--|--|---|
| <p>리처드 용재 오닐
3. 4. Sat. 17:00</p> | <p>리사이틀
R_5 / S_3 / A_2</p> | <p>드레스덴
7. 7. Fri. 19:30</p> | <p>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_10 / S_7 / A_5 / H_3</p> |
| <p>발렌티나 리시차
3. 11. Sat. 17:00</p> | <p>피아노 리사이틀
R_9 / S_7 / A_5</p> | <p>정경화
8. 12. Sat. 17:00</p> | <p>바이올린 리사이틀
R_7 / S_5 / A_3</p> |
| <p>정명화, 신지아, 손열음
3. 29. Wed. 19:30</p> | <p>트리오
R_5 / S_3 / A_2</p> | <p>미샤 마이스키
9. 8. Fri. 19:30</p> | <p>첼로 리사이틀
R_7 / S_5 / A_3</p> |
| <p>백건우
5. 30. Tue. 19:30</p> | <p>피아노 리사이틀
R_7 / S_5 / A_3</p> | <p>백혜선
10. 22. Sun. 17:00</p> | <p>피아노 리사이틀
R_5 / S_3 / A_2</p> |
| <p>양상블
6. 29. Thu. 19:30</p> | <p>디토
R_5 / S_3 / A_2</p> | <p>파리나무 십자가
12. 9. Sat. 17:00</p> | <p>소년 합창단
R_5 / S_3 / A_2</p> |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

명
연
시
리
즈

DAEGU CONCERT HOUSE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태평로 2가)
T. 053.250.1400 / concerthouse.daegu.go.kr

Copyright (c) 2017 by Daegu Concert House.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Daegu Concert House